



임상지표

우울증 외래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‘우울증 외래’ 적정성평가는 임상적 면접에 의존한 제한적인 우울증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우울증의 포괄적인 평가 기반 진료를 정책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.

우울증 외래 부문은 ‘적정성 평가’ 세부지표별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| 2021년 평가개요 |

- 평가대상 :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(건강보험, 의료급여 및 보훈)
- 대상기간 : 2021년 1월 ~ 2021년 6월
- 종합점수 : 78.0점
- 평가등급 : 1등급(70점 이상)

01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

지표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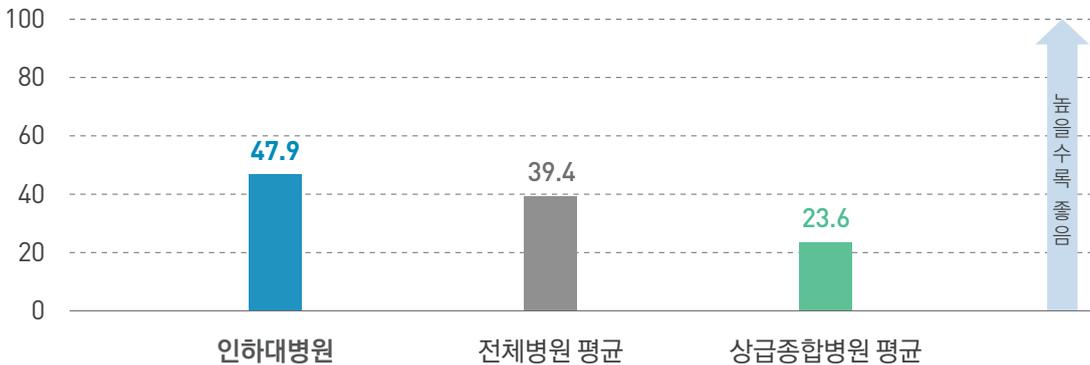
첫 방문 후 3주 이내 외래에 재방문한 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 비율을 말합니다.



지표결과

대상기간 : 2021년 1월 ~ 2021년 6월

단위 : %



• 자료출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

우울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정신요법 치료로 나뉘는데, 약물 치료는 초기 단계적 증량 및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효과나 약물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치료는 치료 초기에 빈도를 높일수록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.

또한, 초기 치료의 반응에 따라 관해에 이르는 비율이 달라지므로 항우울제 최초 처방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초기 치료 반응과 부작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약물 조정이 필요합니다.

02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

지표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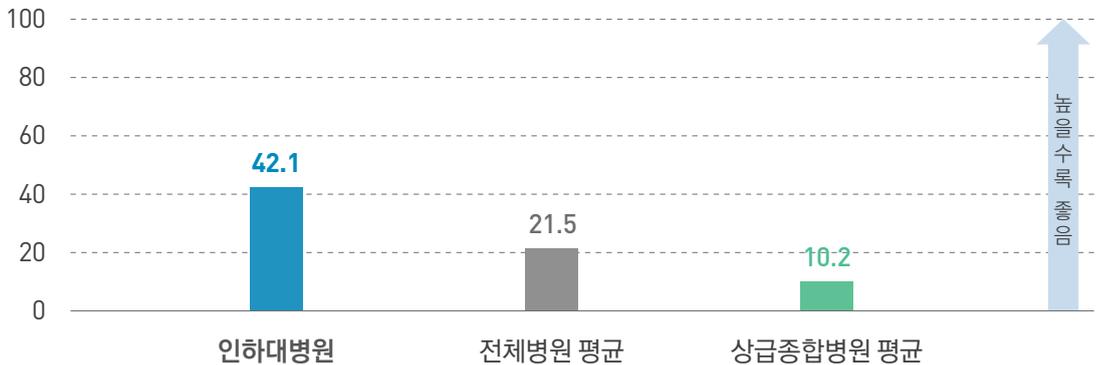
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외래에 방문한 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 비율을 말합니다.



지표결과

대상기간: 2021년 1월 ~ 2021년 6월

단위: %



• 자료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

초기의 단계적 항우울제 증량 및 약물의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순응도 및 치료효과에 영향을 주며 정신치료도 초기 횟수를 높여야 우울증상 개선에 효과적입니다.

03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

지표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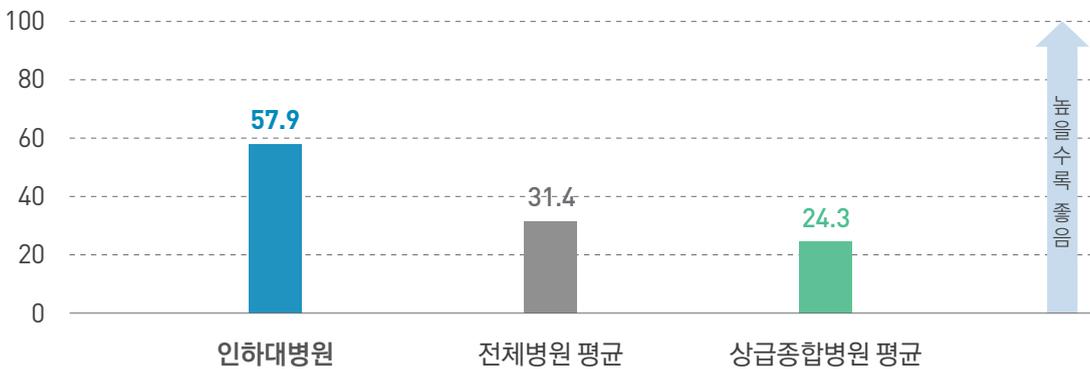
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 환자 비율을 말합니다.



지표결과

대상기간 : 2021년 1월 ~ 2021년 6월

단위 : %



• 자료출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

우울증 초기에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우울증의 심각도와 공존질환, 치료예후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우울증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치료 후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이용한 재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치료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4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

지표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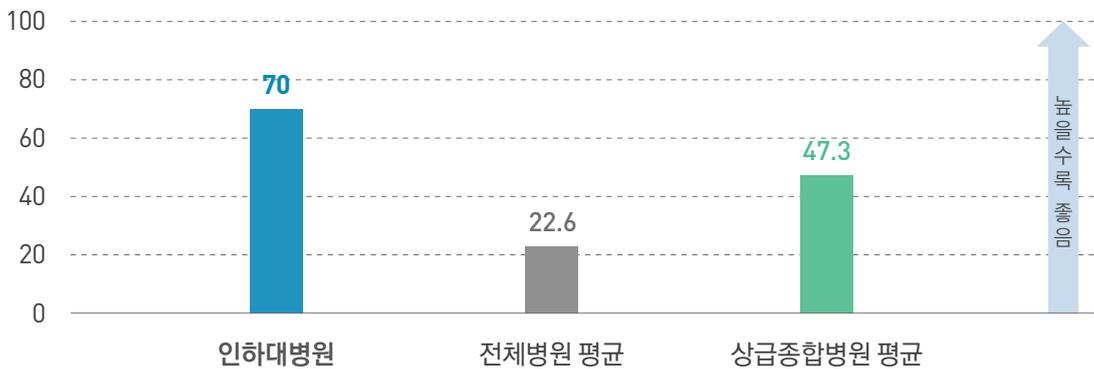
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 후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 환자 비율을 말합니다.



지표결과

대상기간: 2021년 1월 ~ 2021년 6월

단위: %



• 자료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

우울증 치료에서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며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.